

◆ 원 저

장애인치과학 수업 전후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이효주¹ · 방재범² · 이은영¹ · 김광철^{1,2*}

¹강동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 ²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Abstract

STUDENT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 A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CLASS OF SPECIAL CARE DENTISTRY

Hyo Joo Lee¹, Jae-Beum Bang², Eun Young Lee¹, Kwang Chul Kim^{1,2*}

¹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Seoul, Korea

²Department of Dental Education,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atients with disabilities are a significant segment of Korea population. However, they encounter more challenges when seeking dental care. So, dentists and students who are future dental provider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to provide oral care services for them. In this study, we hypothesize that the education of special care dentistry may influence positive attitudes of the disabled. The attitudes are influenced by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religion, experience of volunteer activities and marital statu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 of attitudes of student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between before and after class of special care dentistry.

72 students enrolled at the Kyung Hee University were surveyed. All participants attended class of Special Care dentistry in the third grade. The survey was conducted two times, just before class and after class. The attitudes of students were assessed using the well-documented ATDP (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O(Original) scale and MAS (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scale through the methodology of questionnair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gender, experience of volunteer activities and marital status did not affect their ATDP and MAS score. In religious affiliation, onl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 attitudes between before and after class of Special care dentistry. It means that habitual religious activity may offer stronger effects on student's attitude than short-term education. Therefore, long-term and specific educational experiences are needed to promote positive attitud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J Korean Dis Oral Health Vol.10, No.1: 1-8, June 2014]

Key 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Attitudes, ATDP, MAS

I . 서 론

Corresponding author : Kwang Chul Kim
82 Dongnam-ro, Kangdong-gu, Seoul, 134-727, Korea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Hospital
Tel: +82-2-440-7505, Fax: +82-2-440-7549
E-mail: juniordent@hanmail.net

산업화로 인한 현대사회의 복잡한 환경 요소들은 각종 사고와 질병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장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5%인 10억명 이상의 인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¹⁾, 2011년 보건복지부는 국내 장애인 추정인구가 약 268만명으로 약 5.61%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²⁾. 즉,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의료 지원하고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 및 복지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한 차별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적 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활동 기회가 적고³⁾, 장애인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지만 외래이용 횟수는 낮아 지속적으로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⁴⁾. 또한 한 달 평균 한 명 미만의 장애인을 치료하는 치과의원이 전체의 56%라는 연구 결과를⁵⁾ 통해 치과 영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치료가 수요에 비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병원의 시설, 경제적인 부담 등의 물리적 요인과 장애인 본인의 내재적 요인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진 의료인의 잘못된 인식과 부정적인 태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차원적인 개입⁶⁾과 함께,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장애인치과치료와 관련된 여러 문헌에서는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료인 및 미래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7,8)}.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결여가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연구도 있다⁹⁾.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진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인들이 장애인을 진료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기피하려 한다면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치과과학 수업에 만족할수록 향후 장애인 진료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가 있었는데⁹⁾, 이는 장애인 진료를 시행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학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치과과학 수업 전후 두 차례의 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의료인인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장애인치과과학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의 효과 및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72명(남: 46명, 여: 2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3학년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장애인치과과학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조사는 교육 직전과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는 성별, 결혼 여부, 종교 유무,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 등의 인구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따라서 조사지에는 학생들의 성별, 결혼 여부, 종교 유무,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 등의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였으며(Table 1), 불충분하게 응답한 조사지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장애인치과과학 수업은 총 13주에 걸쳐 주 1회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Table 2).

Table 1. Study respondent characteristics

봉사활동	종교유무	결혼		전체	
		미혼	기혼		
없음	성별	남	8	1	9
		여	10	2	12
	전체		18	3	21
한 달 1회 미만	성별	남	5	1	6
		여	6	2	8
	전체		11	3	14
전체	성별	남	13	2	15
		여	16	4	20
	전체		29	6	35
없음	성별	남	9	6	15
		여	3	0	3
	전체		12	6	18
한 달 1회 이상	성별	남	10	6	16
		여	2	1	3
	전체		12	7	19
전체	성별	남	19	12	31
		여	5	1	6
	전체		24	13	37
없음	성별	남	17	7	24
		여	13	2	15
	전체		30	9	39
있음	성별	남	15	7	22
		여	8	3	11
	전체		23	10	33
전체	성별	남	32	14	46
		여	21	5	26
	전체		53	19	72

Table 2. Contents of special care dentistry class

Class	Subject
1주차	장애인치과에 관한 치과의사로서의 책무 - 치과의료인 실천 윤리 강령, 지침, 책임
2주차	인문학 접근으로의 장애인 - 용어의 정의, 흔히 가지는 사회적 편견, 에티켓 장애의 분류 by WHO (1980, 1997, 2001)
3주차	장애인 복지의 발달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유럽, 한국)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UN의 역할
4주차	의료법에 근거한 장애인 및 장애인 치과
5주차	장애인치과와 연관된 단체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재단법인 스마일, 서울시장애인 치과병원)
6주차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장 (사랑의복지관,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공익사업, 국내 장애인치과 거점 병원 등)
7주차	일본장애인치과의 현황 및 한국과의 교류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뇌성마비 환자의 치과 치료
10주차	정신지체 환자의 치과 치료
11주차	자폐증 환자의 치과 치료
12주차	혈우병 및 백혈병 환자의 치과 치료
13주차	심혈관 질환 환자의 치과 치료
14주차	장애인의 전신마취 하의 포괄적인 치과 치료
15주차	기말고사

2. 연구 도구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ATDP (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O(Original) Form-O와 MAS (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조사지를 이용하였다.

1) ATDP (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O (Original)

ATDP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조사지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도구이다. Yuk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Form-O(ATDP-O), A(ATDP-A), B(ATDP-B)의 세가지 형태로 개발되었는데,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Form-O가 먼저 개발되었으며 이후 각각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Form-A와 B가 개발되었다. 조사지에서 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수준을 의미하고 있으며, 진술된 내용에 대해 참가자들이 솔직한 느낌이나 생각에 해당하는 것을 1(전혀 아님)에서 6(매우 그러함)까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 점수는 각각의 문항의 값을 더한 것으로 0-120점의 범위를 갖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¹⁰⁾.

2) MAS (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태도 및 인식 조사지로, 이것은 태도가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떠한 상황을 글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본인의 감정, 인지, 행동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여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조사지에는 감정과 관련된 16개의 문항, 인지와 관련된 10개의 문항,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8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1(전혀 아님)에서 5(매우 그러함)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최종 점수는 각각의 문항을 더한 값이다. 각각의 항목에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데 최종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¹¹⁾.

3. 통계분석

교육 전후 태도 변화의 차이는 대상자 전원의 응답 점수 합계에 대한 사전 사후 결과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성별, 결혼 여부, 종교 유무,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two-sample t-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Ⅲ. 결 과

1. ATDP (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O (Original)

1) 장애인치과교육 전후의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Table 3)

장애인치과교육 수업 전후에 시행한 사전 사후 검사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학생들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value: 0.672>0.05). 이는 이번 학기에 시행된 장애인치과교육 수업이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13주에 걸쳐 주 1회 1시간동안 이루어진 단기 간의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에 무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ATDP 조사지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장애인치과교육 수업은 주로 장애인의 치과 진료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업 전후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이번에 이용된 연구 도구가 한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Table 3. Change of ATDP score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사전검사	64.14	6.41	-0.425	0.672
사후검사	64.50	6.13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치과교육 전후의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Tables 4, 5)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치과교육 수업 전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차이 검증에 있어서, 성별, 결혼 여부, 봉사활동 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종교 유무에 따른 사전 사후 검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value: 0.035<0.05), 수업 전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 비해 최종점수가 높아 장애인에 대해 평소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종교가 있는 학생들은 이타성을 강조하는 종교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으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업 후, 종교가 없는 학생들은 최종점수가 높아졌고 종교가 있는 학생들은 최종점수가 낮아져 두 집단간의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 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최종점수는 수업 전후 2점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치과교육 수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종교가 있던 학생들의 경우 최종점수가 1점 정도 낮아졌는데, 이는 많은 정보의 습득이 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장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는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더욱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됨에 따라 인식에 대한 조절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change of ATDP score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성별	사전	남	43	64.1395	5.99039	0.060	0.952
		여	24	64.0417	7.12911		
	사후	남	46	65.2174	5.60124	0.708	0.481
		여	27	64.1852	6.66239		
결혼	사전	미혼	49	64.7551	6.36242	1.339	0.185
		기혼	17	62.3529	6.40255		
	사후	미혼	53	64.7547	5.96111	-0.119	0.906
		기혼	19	64.9474	6.37246		
종교 유무	사전	무	36	62.9444	6.13628	-1.677	0.098
		유	30	65.5667	6.54261		
	사후	무	39	65.2051	5.62971	0.562	0.576
		유	34	64.4118	6.43907		
봉사 활동	사전	1달 1회 미만	35	63.2571	6.71409	-1.188	0.239
		1달 1회 이상	31	65.1290	6.00412		
	사후	1달 1회 미만	40	64.7250	6.39706	-0.173	0.864
		1달 1회 이상	33	64.9697	5.55363		

Table 5.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difference of attitudes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성별	남	42	0.81	6.90	0.686	0.495
	여	24	-0.42	7.14		
결혼	미혼	49	-0.39	6.70	-1.504	0.137
	기혼	17	2.53	7.42		
종교유무	무	36	2.00	7.49	2.151	0.035
	유	30	-1.60	5.88		
봉사활동	1달 1회 미만	35	0.91	6.57	0.680	0.499
	1달 1회 이상	31	-0.26	7.43		

Table 6. Change of MAS score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감정	사전	2.3433	0.39853	0.896	0.373
	사후	2.3106	0.34657		
인지	사전	3.1894	0.40388	1.264	0.211
	사후	3.1258	0.44317		
행동	사전	2.8314	0.29539	0.266	0.791
	사후	2.8201	0.35500		

2. MAS (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1) 장애인치과학 교육 전후의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Table 6)

장애인치과학 수업 전후에 시행한 사전 사후 검사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학생들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감정, 인지, 행위 각 영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value:0.373/0.211/0.791).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치과학 교육 전후의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이(Table 7)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치과학 수업 전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차이 검증에 있어서, ATDP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결혼 여부, 봉사활동 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유일하게 종교 유무에 따른 감정 영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value:0.009/0.040). 하지만 그 변화의 양상은 ATDP와는 상반되었는데, 수업 전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종교가 있는 학생들에 비해 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 수업 전에 비해 수업 후 최종점수가 높아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했고, 종교가 있는 학생들의 경

우 수업 전에 비해 수업 후 최종점수가 낮아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회 통합과 비장애인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¹²⁾. 또한 이러한 결과는 조사 도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될 수 있는데, ATDP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일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인 반면 MAS는 3가지 하부분류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므로 각 조사도구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고 찰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산업 재해, 환경오염, 교통사고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후천적 장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장애 인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치과 수요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장애인진료에 관심을 갖는 일부 치과의사 또는 대학병원의 소아치과를 중심으로 장애인치과 진료가 이루어졌던 과거와 다르게 앞으로는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장애인치과 진료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Table 7.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change of MAS score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성별	감정	사전	남	43	2.3289	0.42256	-0.645	0.521
		사후	여	24	2.3958	0.37303		
	인지	사전	남	46	2.2745	0.36192	-1.910	0.060
		사후	여	27	2.4352	0.31986		
	행동	사전	남	43	3.1791	0.39974	-0.244	0.808
		사후	여	24	3.2042	0.41123		
행동	사전	남	46	3.1587	0.42404	0.584	0.561	
	사후	여	27	3.0963	0.46779			
결혼 여부	감정	사전	미혼	43	2.8023	0.2966	-1.114	0.269
		사후	여	24	2.8854	0.28532		
	인지	사전	남	46	2.8505	0.37418	0.307	0.760
		사후	여	27	2.8241	0.32012		
	행동	사전	미혼	49	2.3112	0.39243	0.399	0.279
		사후	기혼	17	2.4338	0.41368		
행동	사전	미혼	53	2.3491	0.34959	0.878	0.383	
	사후	기혼	19	2.2664	0.35833			
행동	사전	미혼	49	3.2000	0.38676	0.360	0.720	
	사후	기혼	17	3.1588	0.46106			
행동	사전	미혼	53	3.1472	0.46929	0.265	0.792	
	사후	기혼	19	3.1158	0.35942			
행동	사전	미혼	49	2.8189	0.32482	-0.584	0.562	
	사후	기혼	17	2.8676	0.18994			
행동	사전	미혼	53	2.8255	0.33998	-0.451	0.653	
	사후	기혼	19	2.8684	0.39851			
종교 유무	감정	사전	무	36	2.2292	0.41188	-2.695	0.009
		사후	유	30	2.4849	0.33684		
	인지	사전	무	39	2.2548	0.36623	-2.096	0.040
		사후	유	34	2.4246	0.31972		
	행동	사전	무	36	3.2028	0.43784	0.293	0.771
		사후	유	30	3.1733	0.36571		
행동	사전	무	39	3.0692	0.37145	-1.394	0.168	
	사후	유	34	3.2118	0.49955			
행동	사전	무	36	2.8299	0.31075	-0.047	0.963	
	사후	유	30	2.8333	0.28111			
행동	사전	무	39	2.8878	0.36589	1.224	0.225	
	사후	유	34	2.7868	0.33503			
봉사 활동	감정	사전	1달 1회 미만	35	2.3235	0.39572	-0.415	0.679
		사후	1달 1회 이상	31	2.3649	0.40700		
	인지	사전	1달 1회 미만	40	2.2938	0.35361	-1.070	0.288
		사후	1달 1회 이상	33	2.3826	0.35243		
	행동	사전	1달 1회 미만	35	3.2057	0.45111	0.346	0.730
		사후	1달 1회 이상	31	3.1710	0.34947		
행동	사전	1달 1회 미만	40	3.1375	0.48973	0.040	0.968	
	사후	1달 1회 이상	33	3.1333	0.37472			
행동	사전	1달 1회 미만	35	2.8500	0.30738	0.539	0.591	
	사후	1달 1회 이상	31	2.8105	0.28481			
행동	사전	1달 1회 미만	40	2.8938	0.36311	1.422	0.591	
	사후	1달 1회 이상	33	2.7765	0.33477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부적절한 구강위생관리로 구강질환에 이환되기 쉽고, 다른 전신질환으로 인하여 구강건강의 유지 및 예방치료를 위한 기회가 적으며, 구강질환에 이환되었을 때 치료가 지연되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에 제약이 많으며, 스스로의 구강건강관리 능력 부족으로 보호자 등 타인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필요도가 높고 의료서비스에 더 다양한 욕구를 가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¹³⁾.

장애인을 진료할 때에는 장애인의 행동조절과 전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시간, 노력, 비용 등이 비장애인의 치료시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 즉 장애인의 진료에는 더욱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맞게 변형된 진료 방법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치과의사들이 진료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환자통제의 어려움 등에 의해 기술적 부담을 느껴 장애인 환자를 부담스러워하고 상황에 따라 진료를 기피하기도 한다³⁾. 즉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데에는 물리적 장벽, 장애인 본인의 내재적인 요인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의료인의 잘못된 인식과 부정적인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결여라는 연구가 있었는데⁶⁾, 앞으로 많은 치과의사들이 장애인치과 진료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연수 교육을 비롯하여 예비치과의사인 학생들의 대학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학부과정에서 장애인 진료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느낄수록 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더 많이 진행한다는 연구가 있었고¹⁴⁾, 학생 때의 장애인치과 교육에 만족도가 높은 치과의사가 장애인 환자의 진료에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도 있었다¹⁵⁾. 이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치과의사가 되고 난 후에 장애인치과 진료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치과학 수업을 받은 치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두 종류의 설문지를 통해 관찰하였다. 인식 및 태도에는 인구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학생들을 성별, 결혼 여부, 종교 유무,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장애인치과학 수업 전후에 시행한 사전 사후 검사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학생들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ATDP와 MAS 두 조사도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13주에 걸쳐 주 1회 1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장애인치과학 수업이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기간의 교육이 학생들의 평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무

리가 있음을 의미하며, 장애인에 대한 대학에서의 교육이 더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될 것이고 이는 긍정적인 인식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이 현재와 같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교육에 머무르기 보다는 더욱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사도구와 장애인의 치과 진료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애인치과학 수업 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조사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이론상의 그리고 심리측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어떤 것도 완전한 도구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¹¹⁾.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치과학 수업 전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차이 검증에 있어서, 성별, 결혼 여부, 봉사활동 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종교 유무에 따른 사전 사후 검증에 있어서는 ATDP와 MAS 두 조사도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종교활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장애인과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에 대해 더 우호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여러 연구가 있었고¹⁶⁻¹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극복의 대안으로 접촉과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있었으며¹⁹⁾,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역할 기대가 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라는 연구도 있었다²⁰⁾.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이 장애인을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환자군을 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한다면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치과학 수업 전후 두차례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학생들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사전 사후 검사에서 ATDP와 MAS 두 조사도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단기간의 장애인치과학 수업만으로는 무리가 있음을 의미하며, 대학에서의 교육이 더욱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전 사후 인식 차이 검증에 있어서, 성별, 결혼 여부, 봉사활동 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두 조사도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상적으로 장애인과 접촉하고 소통하는 종교활동이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장애인치과학 교육이 더욱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커리큘럼으로 개발된다면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장애인들이 그들의 의료적 필요도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Organization WH : World report on disability Geneva, Switzerland, 2010.
2. Welfare Moha : Actual Condition Survey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2011.
3. Woo KS, Song HJ, Kim SM : Physician's attitude and behavior for the disabled.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1:277-300, 2009.
4. 김윤, 이진용, 이범석 등 : 장애인의 요양급여 이용실태 분석 및 의료보장 강화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5. Kim SM : Dental Care and the state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Dentists for the handicapped. *J Korean Acad Pediatr Dent*, 28(1), 2001.
6. 김미옥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서*, 14:99-126, 2002.
7. Erridge PL : Dentistry for the handicapped : a survey of current teaching. *Br Dent J*, 161:261-263, 1986.
8. Nunn JH, Murray JJ : Dental care of Handicapped children by general dental practitioners. *J Dent Educ*, 52:463-465, 1988.
9. Vainio L, Krause M, Inglehart MR : Patients with special needs : dental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attitudes, amd behavior. *J Dent Educ*, 75:13-22, 2011.
10. Yucker HE, Block JR : Research with the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s(ATDP). Hempstead, NY: Hofstra University Bookstore, 1960-1985, 1986.
11. Liora F, Noa V, Shirli W : The Multidimensional Attitudes Scale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 *RCB*, 50:(3)166-176, 2007.
12. Jung HK, Kim MH : Attitudes of physicians and nurses toward with disabled person. *Korean J Rehabil Nurs*, 7(2):213-219, 2004.
13. Oshima S, Kirschner KL, Heinemann A : Assessing the knowledge of future internists and gynecologists in caring for women with tetraplegia.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rehabilitation*, 260(10):1439-1444, 1988.
14. Smith CS, Ester TV, Inglehart MR : Dental education and care for underserved patients: an analysis of students' intentions and alumni behavior. *J Dent Educ*, 70(4):398-408, 2006.
15. Dao LP, Zwetchkenbaum S, Inglehart MR : General dentists and special needs patients: does dental education matter? *J Dent Educ*, 69(10): 1107-15, 2005.
16. Lee MM, Sonis AL : An instrument to assess dental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handicapped. *Spec Care Dentist*, 3(3):117-123, 1983.
17. Asmus EP, Jr., Galloway JP : Relationship between music therapy students' contact with and 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s. *J Music Ther*, 22(1):12-21, 1985.
18. Lyons M : Enabling or disabl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Am J Occup Ther*, 45(4):311-316, 1991.
19. 류원상 :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집*, 2006.
20.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장애인 구강보건특별위원회 : 장애인 구강보건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2002.